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보도자료 작성법

KAIST 기술사업화팀장 이주현

2011. 1. 27(목)



We still maintain and encourage many activities where the university, its students and faculty mix on a continuing basis with the business community:

- Companies
- Venture capitalists
- Angel investors

Forming an “Entrepreneurial Eco–system”
Entrepreneurship is in the air!

- 언론에 보도되는
보도자료 작성의 노하우와 사례
- 기술이전 관련
보도자료는 어떻게 작성하는가?
- 기타 설명자료

2010년 국감의 이슈!

휴면특허, 장롱특허
저조한 기술이전 실적

정부출연

기술

전자신문

상임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행아의

중도일보

출연연 10곳 중 7곳 '장롱 특허'

2010년 10월 15일
02면 (종합)

국책연구 투자 대비 기술료 '절감'

작년 지경부 산하 연구소 예산의 3.3% 그쳐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지경부 산하 13개 국책연구소의 2009년 투자예산 대비 기술료 수입이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홍일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의원실이 조사한 '국가 R&D 예

산 및 기술료 수입 현황'에 따르면 2009년 R&D 예산은 1조7557억원인 반면에 기술료 수입은 577억원으로 투자예산 대비 기술료 수입이 3.3%에 그쳤다.

이 같은 기술료 수입 비중은 7.1%인 독일의 프라운호퍼연구소, 8.9%인 대만 공업기술연구소 등

선진국 연구소와 비교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지경부 산하 13개 국책연구소의 기술료 수입은 2007년 767억원에서 2008년 683억원, 지난해 577억원으로 해마다 감소했다.

홍일표 의원은 "지경부 산하 국책연구기관들의 기술료 수입이 적다는 것은 생산된 기술이 시장의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을 방증한다"며 "산학협력 활동을 강화하고, 특허 관리나 기술 이전을 전담할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5.5*7.0)cm

77.9%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도 이들 13개 연구소의 특허 등록은 67건, 실용신안 등록은 7개, 5건 이상을 기록했으나, 특허가 전혀 없는 기관도

조사됐다.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AT) 등 13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이들 13개 연구기관 중 10곳이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허를 냈는데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다"며 그 특허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현재처럼 R&D 예산이 증가하는데도 기술료 수입이 늘지 않는 것은 연구 성과가 제대로 평가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질을 평가할 수 있는 명확한 성과 평가 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moons@

(10.4*11.9)cm

허 과다등록으로 기관별 보유특허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10.1*16.3)cm

OUIC

Office of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대학 연구성과 ‘헐값’에 팔린다

러닝로열티 조건에 150억 계약 맺고 고작 2억 받기도

‘가이드라인’도 독소조항 많아 유명무실

서울 소재 모 사립대학 산학협력단은 지난달 A기업과 150억원 규모의 산학협력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학교 측은 A사로부터 2억원 안팎의 돈만을 받았다. 기술가치 평가 상 150억원에 달하지만, 나머지 액수에 대해서는 상용화 성공시 지불하는 일종의 러닝로열티 계약을 하자고 A사에서 요청했기 때문. 이 경우 상용화에 실패했을 경우뿐만 아니라 성공했다고 해도 A사에서 막대한 매출을 일으키지 않는 한 추가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다. 사실상 2억원짜리 기술이전 계약을 한 셈이다. 학교 관계자도 “150억원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말했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kr

21일 전자신문이 단독 입수한 한 국공학한림원(회장 윤종용)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과 기업 간 산학협력 시 기업 측은 여전히 특허 소유권이나 이전 가격에 있어 ‘제 값’을 쳐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학에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대학들은 산업기술을 이전하기 위해 앞다퉈 기술이전회사를 만들

고 있으나, 이런 제 값을 인정하지 않는 관행 때문에 연구자나 기술지주회사가 수익을 올리기는 사실상 어려운 형편이다.

정부가 대학-기업 간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만든 ‘산학협력 공동계약 표준 가이드라인’이 대학 측의 요구는 묵살한 채 기업의 입장만 반영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대학 산학협력단장은 “표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보이콧하고 있다.

서울에 있는 명문 사립 K대가 최근 한 기업과 맺은 산학협력 공동연구 계약서를 보면 이러한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계약서상에는 ‘모든 지식재산권은 갑(기업)과 을(대학)이 50대50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그 아래의 조항을 보면 기업과는 달리 대학이 자신의 지재권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는 ‘갑’이 우선 양수권을 가지게 되고 기업이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한 결과를 사용하면서 필요할 때는 해당 산학협력 이전부터 대학이 보유했던 지식재산권의 사용권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의 ‘선행기술 사용’ 조항도 버젓이 포함돼 있다. 이 조항은 대학가에서 대표적인 산학협력 독소조항으로 지적돼 온 내용이다.

대학의 연구 성과로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도 ‘갑’의 입장인 기업의 입맛대로다. K대의 계약서 경우에도 ‘갑이 을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을

뿐, 수익의 일정 비율 지급 등의 의무조항은 전혀 없다. 기업의 의지에 따라 돈은 줄 수도 안줄 수도 있는 상황으로, 대부분이 어려운 여건을 들며 무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대 연구처장을 지냈던 한 교수는 “다른 학교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며 서울 소재 주요 대학보다 협상력이 낮은 대학들은 연구비 수주에 급급해 제대로 된 기술가치 평가도 없이 헐값에 이전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혁기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장은 “정부로선 최선을 다한 중재안이고 협상력이 부족한 일부 대학들에선 환영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공학한림원은 보고서를 통해 “특히 소유권은 기술개발자가 가지도록 해 대학의 R&D 동기부여를 높이는 동시에 사용권과 우선 구매권을 기업이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6*16.2)cm

QUIC

Office of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대학들 아끼던 ‘장롱 특허’ 구조조정 왜?

시장성 고려 않고 등록해 부작용
기술이전 수입이 유지비도 안 돼
한양대 등 발명가 인터뷰 도입
출원 건수 대신 질 관리로 바뀌

지난해 한양대는 특수한 막을 이용해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CO₂)만을 분리해 내는 특허기술을 미국 기업에 이전하는 대가로 150만 달러(약 17억원)를 받았다. 게다가 향후 매출액의 3%를 로열티로 받기로 했다. 친환경 산업 등에서 큰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평가되는 이 기술 덕분에 한양대는 꽤 쓸쓸한 수익을 얻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성과는 한양대의 독특한 특허관리 시스템 덕분이었다. 한양대 산학협력단은 2006년 기술특허 관리를 위해 국내 대학 중 최초로 변리사를 채용했고 2008년부터는 ‘발명자 인터뷰’라는 새 제도를 도입했다. 대학 소속 변리사와 특허경영 컨설턴트, 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관계자 등이 해당 연

구팀을 인터뷰한 뒤 성장 가능성과 시장성을 판단한다. 이를 통과한 경우에만 특허출원비와 유지비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산학협력단장인 박재근(전자통신공학부) 교수는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한 특허는 쓸모가 없다”며 “전문가들이 기술의 시장성을 판단해주기 때문에 교수는 연구에 더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양대는 2008년 한 해에만 기술 이전료로 251억원을 벌어들였다. 여기서 특허 유지 등 관련 비용을 빼고도 51억원이나 남겼다. 국내 대학 중 단연 최고였다.

올해 들어서는 KAIST·성균관대·전남대가 ‘발명자 인터뷰’를 도입했다. 그동안 특허 출원 건수에만 매달리던 것에서 기술의 시장성을 중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셈이다. 특허청도 이들 대학에 제도 운영비로 4500만원씩 지원키로 했다.

이러한 변화에는 특허 출원·유지 관련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기술을 개발해 특허까지 출원했지만 정작 그 기술로 인한 수입이 별로 없어 많은 대학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

대학 특허 보유와 기술이전 수익 현황

순위	대학	보유 특허 수(건)	기술이전 순수익(원)
1	한양대	2563	42억 800만
2	중앙대	761	9억 7000만
3	충북대	606	6억 8100만
	⋮		
150	서울대	4458	-8억 8300만
151	연세대	2551	-8억 9300만
153	포항공대	2135	-10억 9900만
155	고려대	2632	-17억 3500만
156	KAIST	4641	-40억 7900만

※순위는 기술이전 순수익(기술이전 수입에서 특허출원·유지 비용을 제한 수익) 기준

자료: 국회 서상기 의원실
(4년제 156개대의 2006~2008년 현황 기준)

로부터 제출받은 ‘대학별 특허 및 기술 이전 수입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6~2008년 사이 156개 4년제 대학이 보유한 특허는 4만 4169건이었다.

하지만 기업 등에 이전된 기술은 6.1%(2735건)에 그쳤다. 이렇다 보니 전체 대학의 기술이전 수입(403억원)은 특허 유지비(512억원)에 훨씬 못 미쳤다. 특허를 계속 유지하려면 매년 많게는 100여만원의 특

허 유지비를 내야 한다. 물론 출원 과정에서도 돈이 들어간다. 미국의 경우 2007년 대학 특허 등록건수는 3258건으로 한국 대학(4042건)보다 적었다. 하지만 기술이전 건수는 한국 대학보다 3배(4316건) 많았고 수입액도 75배(2조802억원)나 됐다. 특히 스탠퍼드대는 자체 기술특허사무소(OTL) 소속 전문가 30여 명이 엄격한 특허 등록심사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장롱 특허’ 유지비를 줄이고 시장에 팔 수 있는 기술 위주로 예산을 분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KAIST의 한 관계자는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지 않은 특허를 유지해준느라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인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서상기 의원도 “시장성 있는 기술 관리 위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내 대학에서 가장 많은 특허(102건)를 가진 KAIST 이대길(기계과) 교수는 “특허를 많이 등록해봐야 ‘대어’를 낚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반박했다. 또 교수 업적 평가에서 특허 등록건수를 비중 있게 평가하는 것을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민상 기자 stephan@joongang.co.kr

(23.5*14.4)cm

• 언론에 보도되는 보도자료 작성 노하우와 사례

언론 홍보를 하겠다는 뜻!

“많은 기자들이 얘기해 준 것을 무턱대고 그냥 썼다가 오보가 되거나, 독자 항의를 받은 경험을 갖고 있다. 기자에게 **오아시스** 같은 사람은 언제나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람이다. 신뢰할만한 **취재원**이나 홍보담당자를 얼마나 가까이 두느냐가 기자의 능력과 직결되어 있다.

- 출처: 신동호 지음 [언론홍보핸드북]

“기자가 산학협력 기사를 쓰려고 할 때, 가장 신뢰감이 있는 대표 인물(취재원)이 되는 것이 홍보입니다.” - 이주현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사람

• 언론에 보도되는 보도자료 작성 노하우와 사례

기자 = 출입처 제도(출입기자단)

**KAIST
기 준**

교육과학기술부 출입기자단
대덕연구개발특구 출입기자단
중앙일간지 대전주재 기자단

- 서울: 교과부 과학 기자실 (35-50)
교과부 교육 기자실 (31-50)
- 대전: 중앙일간지 대전주재 (10-10)
대덕특구 출입기자단 (15-22)

$(35 \geq 31 \geq 10) + 15 = 50$ 개 언론사

$50 + 50 + 10 + 22 = 132$ 명의 기자

• 언론에 보도되는 보도자료 작성 노하우와 사례

교과부 출입언론사

- 서울: 교과부 과학 기자실 (15-22)
교과부 교육 기자실 (31-50)

- 통 신(02): 연합뉴스, 연합뉴스문
- 종합지(11): 경향, 국민, 내일, 동아, 문화, 서울
세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 경제지(07): 매경, 머투, 서경, 아경, 헤경
한경, 파이낸셜뉴스
- 방 송(07): CBS, KBS, MBC, MBN, SBS, YTN, BBS
- 전문지(02): [과학] 전자, 디타
- 전문지(04): [교육] 교수신문, 주간교육, 한국교육, 한국대학
- 영자지(02): KH, KT
- 기 타(04): 아투, 아주경제, 아이뉴스24, 이데일리

• 언론에 보도되는 보도자료 작성 노하우와 사례

대전지역 출입언론사

- 대전: **대덕 특구 기자실(35-50)**
중앙지 대전주재 기자 (10-10)

- 통 신(02): 연합뉴스, 뉴시스
- 일간지(07): 대전일보, 중도일보, 충청투데이,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전자신문, 디지털타임스
- 방 송(05): KBS대전, 대전MBC, TJB, YTN, CBS
- 인터넷(01): **대덕넷(hellodd.com)**

- 중앙지(10): 문화, 동아, 조선, 한국, 서울,
중앙, 국민, 세계, 경향, 한겨레

한겨레
THE HANKYOREH

경향신문

내일신문

서울신문

THE KOREAN

大田日報

中叻日報

충청투데이

한국일보

매일경제
서울경제

헤럴드경제
heraldbiz.com

아시아경제

중앙일보
朝鮮日報

釜山日報

한국경제

머니투데이

파이낸셜
뉴스

이투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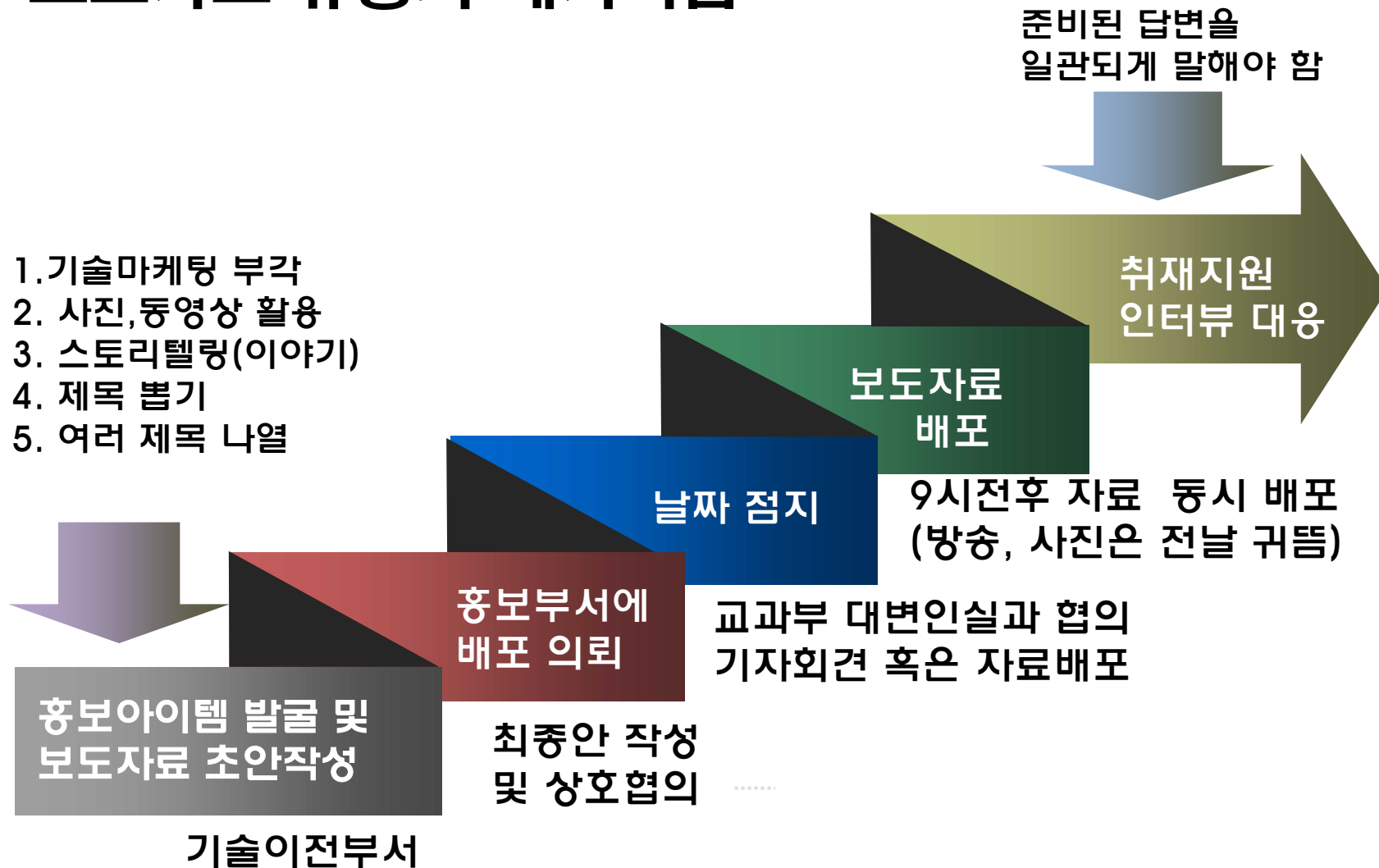
국민일보

전자신문

디지털타임스

THE TIMES

보도자료 유통의 메커니즘



보도자료

KAIST

보 도 시 점			
자 료 배 포 일	2010. 10. 18(월)	매 수	3매
첨 부	관련 사진 6매		
내 용 문 의	기술사업화팀 선임 정주환(042-360-2173, 016-9877-2681) 문화기술대학원 박사과정 황성재(010-4912-1968)		
글로벌협력본부	본부장 임용택 042-360-2016, 011-9421-3227		
홍 보 팀	팀 장 김윤수 042-360-2299, 010-6188-3942 담당 문재영 042-360-2294, 010-2016-6440		

KAIST 학생, '가상손가락' 아이디어로 5억 받았다. 황성재 학생 개발 '멀티터치 모사기술', 빅트론닉스와 기술이전계약

학생의 작은 아이디어가 기술로 구현돼 5억 원을 받고 기술이전에 성공했다.

KAIST(총장 서남표) 문화기술대학원 박사과정 황성재(28세) 학생은 모바일 환경의 태생적 단점인 손가락에 의한 화면가림현상과 디바이스를 한손으로 잡은 상황에서 멀티터치 조작이 매우 불편하다는 아이디어에 착안해, 한 손가락만으로도 줌인/아웃 등의 멀티터치 기능을 수행하는 가상손가락(Virtual Thumb)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마치 사용자가 두 손가락으로 명령을 수행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한다. 즉, 터치 지점의 대응점에 생성되는 가상 손가락을 이용, 실제 터치 동작에 대응하는 움직임을 모사하여 줌인/아웃과 회전각 기반의 다양한 명령을 수행한다.

또한 이미지 객체의 회전도 필요치 않은 상황에서는 회전각 변화를 통해 다양한 명령을 직관적으로 매칭시킬 수 있다. 이는 별도의 명령 메뉴를 활성화하지 않아도 다양한 명령을 동시수행하게 만드는 기능이다. 코너 영역에서의 줌인 명령의 경우, 화면 중심으로 객체를 이동시키지 않아도 코너만을 효과적으로 줌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술이전에 성공한 '가상손가락' 기술은 지난해 12월 초 특허청이 주최한 2009 대한민국발명특대전에서 은상을 수상한 아이디어가 기반이 되었으며, 앞으로 각종 터치기반 기기, 즉 TV, 이북(eBook), 휴대폰, 스마트폰, 태블릿PC, 내비게이션, 아이패드, 교육용 기기 등의 미들웨어로 적용이 가능하다.

한편, KAIST 산학협력단(단장 장재석)은 이 아이디어에 대한 시제품 제작 등의 지원과 마케팅활동으로 사업화를 성공시켰으며, 국내 이동전화기 제조업분야의 중소기업인 (주)빅트론닉스와 특허양도비 5억 원에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18일 밝혔다.

보충1. (KAIST 산학협력단 장재석 단장 멘트추가)

"현재 KAIST 산학협력단은 학생 발명동아리인 카인벤토(KAINVENTOR)를 운영중이며 학생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해 시제품제작과 특허 출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기술이전 성공이 모델이 되어 많은 학생의 아이디어가 산업계로 기술이전되는 활력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충2. 첨부사진설명 (6개 사진공동)



KAIST 황성재 학생이 모바일 환경에 적용된 가상손가락을 이용하여 멀티터치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

보충3. 용어설명

○ 멀티터치(Multi-touch)

멀티터치(Multi-touch)는 터치스크린, 터치패드가 동시에 여러 개의 터치 포인트를 인식하는 기술로, 일반적인 하나의 터치 포인트만 인식을 하는 것보다 더 다양한 조작을 할 수 있다.

○ 핀치(핀치 제스처, Pinch Gesture)

마치 두 손가락을 이용해 꼬집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손가락을 벌리거나 오므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제스처를 이용해 사용자는 직관적으로 줌인 줌아웃 명령을 수행할 수 있다.

○ 화면가림현상(폐색현상, Occlusion)

화면이 다른 오브젝트로 인해 가려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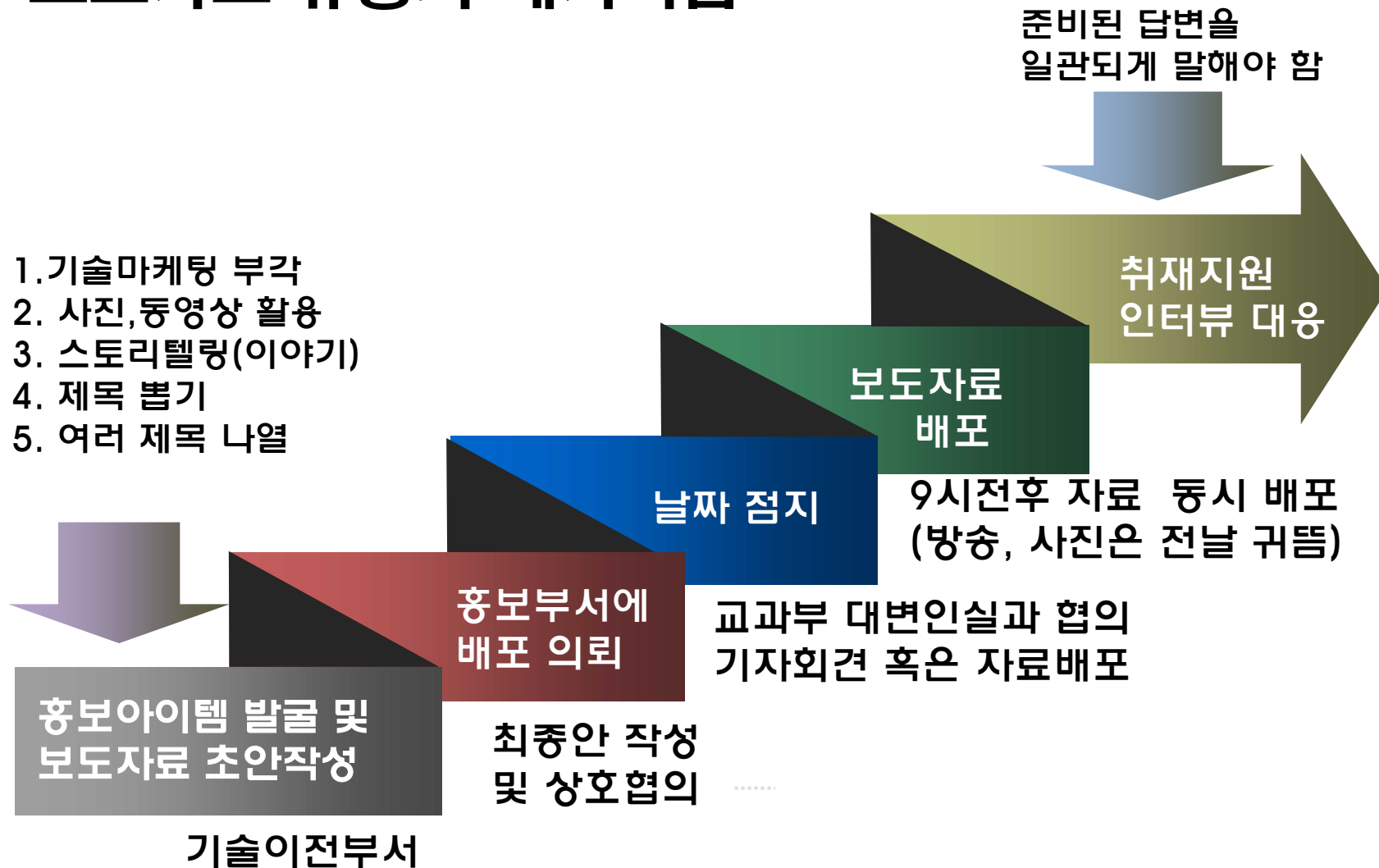
동영상 제공



정리: 보도자료 배포의 준비물

- **기본자료: 보도자료(1페이지)와 사진(고해상도)**
- **추가자료:** (1) 동영상 – 방송 카메라 출동의 판단
(2) 성공스토리(스토리텔링) – 인터뷰 여부 판단
(3) 첨부 사진에 대한 설명
(4) 보충설명자료(배경설명, 트렌드, 이력서 등)
(5) 각종 멘트(고위층의 의미부여 코멘트)
- **고민 해야할 점**
 - 6하원칙, 인터뷰이 선정, 산학협력단 소개자료 준비
 - 인터뷰의 키워드 준비, 당일 주변상황 고려
 - 홍보의 메시지와 목표의 명확화, 분명한 통계자료

보도자료 유통의 메커니즘



정리: 보도자료 배포의 결과

•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보도(2010-10-20)

〈중앙일간지〉 (5개)

- 동아일보 - 생활 속 아이디어가 낳은 기술이 5억 낳았네요
- 조선일보 - 아이디어 하나로 5억 원 번 대학생
- 세계일보 - 고교시절 꿀씨가 5억짜리 기술개발
- 국민일보 - 대학생이 ‘가상손가락’ 기술개발, 벤처기업에 5억받고 이전했다
- 한겨레 - 스마트폰용 ‘가상손가락’ 으로 대박!

〈경제일간지〉 (4개)

- 서울경제 - KAIST 학생이 ‘가상손가락’ 기술 개발
- 파이낸셜뉴스 - 가상손가락 기술이전 대학생 5억 대박
- 머니투데이 - KAIST 대학생 ‘가상손가락’ 으로 5억 대박
- 아시아경제 - 5억원짜리 ‘가짜 손가락’

정리: 보도자료 배포의 결과

•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보도(2010-10-20)

〈특수일간지〉 (2개)

- 디지털타임스 – ‘가상손가락’ 기술이전 5억 벌다
- 전자신문 – 황성재씨, 멀티터치기술 5억에 중기 이전

〈지역일간지〉 (4개)

- 대전일보 – 튀는 아이디어로 5억 대박 ... KAIST 발명왕
- 충청투데이 – 작은 아이디어, 큰 기술 됐다
- 중도일보 – KAIST 대학원생 특허 5억 ‘대박’
- 충청일보 – ‘가상손가락’ 으로 5억 벌다

〈방송보도〉 (4개)

- MBC(전국) – 아이디어 하나로 5억을!..발명왕이 된 꿀찌MBC뉴스투데이
- KBS(로컬) – [뉴스9] 꿀찌 발명왕으로 변신 –
- YTN – [대전·대덕] '가상손가락' 학생 아이디어...5억 원 벌었다
- TJB(대전방송) – 단신보도 – 대학원생 ‘가상손가락’ 기술 개발

정리: 보도자료 배포의 결과

•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보도(2010-10-20)

〈인터넷 검색〉 (같은 내용이므로 매체와 보도일자만 기록)

•〈2010-10-19~10-20〉

- 연합뉴스(뉴스통신사) “KAIST대학원생, ‘가상손가락’ 기술 5억원에 이전
- 노컷뉴스 (CBS의 인터넷매체)
- 헤럴드경제 헤럴드생생뉴스(인터넷매체)
- 대덕넷(www.hellodd.com)
- 데일리경제(www.kdpress.co.kr)
- 대학저널(www.dhnews.co.kr) (대학뉴스 전문 인터넷매체)
- 충남일보 (충남지역 일간지)
- AM7(문화일보 발간 무료일간지)
- 투데이코리아(인터넷종합일간지)
- 우리일보(인천지역 인터넷 신문)
- 환경닷컴 Xports News(엑스포츠 뉴스) (예능 인터넷매체)

좋은 제목들


- 대학연구 기술이전 •사업화, **남다른 비결**
- **스타 안 부러운 역대** 연구원(기술이전 인센티브 관련)
- 자가치아 뼈이식 기술, **세계에서 주목**
- 농생명공학 연구 한 우물... **첫 해외기술 이전**
- **잠든 특허 깨워** 새 사업 날개, 000기관 ‘휴면특허’ 활용결실
- 대학기술지주회사 러시 **‘기술의 힘’**
- **할리우드 넘보는 ‘000 기술’**
- 산·학 **‘기술품앗이’** 대박제품이 저절로
- **췌!** 영업비밀 안전하게 지켜드려요
- 대학 • 연구기관 기술사업화, **시장 모니터링이 중요**
- 그래핀 **테마주(株)**를 주목하라
- 삼성전자, 특허조직 재정비
- **특허괴물 공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자
- 강원기술지주회사 창사 **1년만에 본궤도**

정리: 보도자료 배포의 결과

- 신문기사의 3분의 2는 홍보의 결과이다! (보도자료 베끼기)
 -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도 60%
 - 경제지나 전문지는 의존도가 더 높다! 70%
 - 즉, 30~40%만이 새로운 사실을 첨가한 뉴스였다.
- 신문기사 신뢰도는 광고의 10배 (신뢰성과 주목도)
 - 광고는 안 믿지만, 보도는 신뢰한다.
 - 광고는 비주얼, 보도는 언어와 의미의 전달 - 입소문으로 연결
 - 광고와 달리 사라지지 않고, 연쇄적 반응을 일으킨다.
(인터넷뉴스사이트, 포털사이트 등에 기록으로 남는다)

• 이걸로 끝인가?

참고: 광고



KAIST
www.kaist.ac.kr

“
내 꿈은 KAIST를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 중
하나로 만드는 것
”

대한민국 NO.1 대학에 만족한다면,
글로벌 카이스트를 창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생각과 비전을 키워 세계와 경쟁할 때,
끊임없는 혁신으로 새로운 꿈을 창조할 때,
카이스트는 세계 속에 우뚝 솟을 수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카이스트를 향한 새로운 도전이
세계를 감동시킬 것입니다.

세계는 카이스트를 *NO.1*으로 기억할 것이다!

〈2010학년도 학사 2차 전형 모집안내〉

모집전형	선발인원	원서접수	지원자격
2차 (일반전형)	750명 내외	2009.9.18(금)~9.25(금)	입학처 홈페이지 참조

※ 인터넷 접수 : <http://admission.kaist.ac.kr>
 ※ 전화문의 : 042/350-2141, 2, 5, 6

교수초빙 | 진분야, 수시초빙 | 문 의 처 | 교무팀 042/350-2154, 5

(23.2*38.2)cm

9단 21 광고 세로변형(5단통에 대비한)

단가: 30,000(내지)~400,000원(1면)

3만원*9단*21cm = 567만원
 5만원*9단*21cm = 945만원
 8만원*9단*21cm = 1,512만원
 10만원*9단*21cm = 1,890만원

- 신문은 15단(51cm)*37cm(세로*가로)
 1단 = 3.4cm(세로), 37cm = 통(가로)
 5단통 = 전통적인 광고규격(하단부)
- 일부신문은 개념 변화 중
 - 1단*1cm 개념에서 1컬럼 1단 개념으로
 - 1컬럼(세로3cm) * 1단(가로 3.4cm)

• 미디어빅뱅과 대학의 기술이전 홍보

東亞日報

2011년 01월 12일
17면 (지역)

다들 태블릿PC를 꺼냈다 회의가 스마~트 해졌다

■ 서울 서초구청 아이패드 행정

7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구청 5층 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책상 위에는 검은색 결재판 모양의 도구 9개, 커 피 잔 9개뿐. 책상 위에 오래 쌓아두었던 서류는 한 장도 없었다. 덩 빈 책상 앞에 앉은 전익철 서초구청장과 8명의 구청 간부는 결재판 모양의 도구 커버를 열었다. 그 속에서 나온 것은 애플의 태블릿PC '아이패드'. 겹 지로 9.7인치 화면을 누르자 이날 회의 자료 인 '확대간부회의 파워포인트(PPT)' 파일 9 개가 화면에 나타났다.

● 종이 대신

위 끄짱대던 국장들도 직접 화면에 대고 글 을 쓰면 바로 저장되는 아이패드 내 '펜글씨 입력' 메뉴를 이용하고 있다.

● **슬림화 외치는 '태블릿 행정'... 효과는 아직**
태블릿PC를 이용해 업무를 보는 이른바 '태블릿 행정'의 핵심은 불필요한 요소를 줄 이는 것.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 공무원들은 서류 회의, 노트북 회의, 화상 회 의 등의 단계를 거치면서 스스로 업무 슬림 화를 강조해왔다.

이러한 행

• 태블릿, 미디어 산업 흔들다!!!!!!!!!!!!!!!!!!!!

• 서울 서초구청의 아이패드 행정

“종이를 없애자!”

• 미디어 환경의 변화!!!

출퇴근 시간

스마트폰 → 태블릿PC

태블릿PC의 등장

전통적 미디어기업(신문+방송+잡지 등)의
생산유통-광고판매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직접 영향력 행사

• 태블릿PC 전용 신문 <The Daily> 창간 (루퍼트 머독+스티브 잡스)

멀티미디어형 기사

- 영상, 화려한 인포그래픽, 풍부한DB가
연동된 현란한 멀티미디어형 기사의 등장

(15.5x25.6)cm

• 미디어빅뱅과 대학의 기술이전 홍보

아시아투데이 석간

2011년 01월 11일
01면 (종합)

막오른 '뉴 IT혁명'... 한국이 이끈다



향후 10년, 스마트폰·태블릿PC·스마트TV가 '태풍의 핵'

<목 차>

프롤로그

- ① 스마트워크의 미래는
- ② 진화하는 스마트단말기
- ③ 소셜네트워크... 소통 혁명
- ④ SNS, 신비즈니스 모델로
- ⑤ 3D로 옷 입는 스마트세상
- ⑥ 스마트TV, 생활변화 이끈다
- ⑦ 디스플레이 혁명
- ⑧ 전문가 제언

“과거 10년이 인터넷 혁명이었다면 향후 10년은 스마트 혁명 시대다. 그리고 모바일은 스마트 시대의 중심축을 이룰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스마트 열풍에 사로잡혀 있다. 다소 늦은감이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1년동안 무선인터넷 분야에서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다. 짧은 기간 중 세계적 규모의 무선인터넷망을 구축했고, 스마트폰 가입자는 10배 이상 늘어 722만명을 돌파했다.

한국 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해온 정보기술(IT) 산업은 2010년을 기점으로 스마트 혁명시대로 진입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대중화, 그리고 인터넷 기반의 스마트TV가

태풍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

스마트폰 분야의 선두주자인 애플을 삼성전자가 바짝 뒤쫓고 있으며, LG전자와 팬택도 경쟁력 있는 스마트폰을 내놓으며 해외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폐쇄적 사업운동을 해오던 국내 이동통신사업자들도 개방정책을 수용하면서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육성에 팔을 걷어붙였다. 모바일 와이맥스·LTE 등 차세대(4G) 이동통신 경쟁력도 뒤쳐지지 않는다.

기업시장에서도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활용한 모바일 오피스 구축이 한창이며, 저출산 및 교통·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워크 환경 조성사업도 시동을 걸었다.

스마트 혁명은 비단 스마트폰 분야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스마트TV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은 이미 제품과 콘텐츠 부분에서 시장을 선점했다.

발달된 초고속인터넷 인프라를 바탕으로 조만간 스마트폰-TV-PC를 잇는 N스크린 서비스가 상용화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2011년 한국 IT산업화두를 스마트 혁명의 본격화로 보고 있다. 특히 기술력과 제품 경쟁력, 그리고 우수한 소비자들이 어울림으로써 새로운 IT혁명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효정 기자 hikim@

관련시리즈 5면

(21.0*12.8)cm

• 미디어빅뱅과 대학의 기술이전 홍보

- 2010. 9월 설문조사(대상: 종이신문 구독자이며 아이패드사용자 1,609명)
58.1%(931명)이 6개월 이내에 종이신문 구독 중단 의향을 보임
- 스마트 하드웨어 혁명 – 스마트폰, 태플릿PC
- 스마트 소프트웨어 혁명 – 트위터, 페이스북
- 전 세계 등록자(2010.12월)
 - 트위터 1억 7,500만명 / 페이스북 6억명(국내 211만명)
 - 트위터의 2010년 트윗 250억건 / 페이스북 콘텐츠 매일 10억건

• 미디어빅뱅과 대학의 기술이전 홍보

• “일간인쇄여 안녕!”

2009.3.27 마지막 인쇄판을 발행한
미국 일간지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1면 알림
미국의 '로
2009년 4
전세계적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100년 역사 미전역배포 유력 일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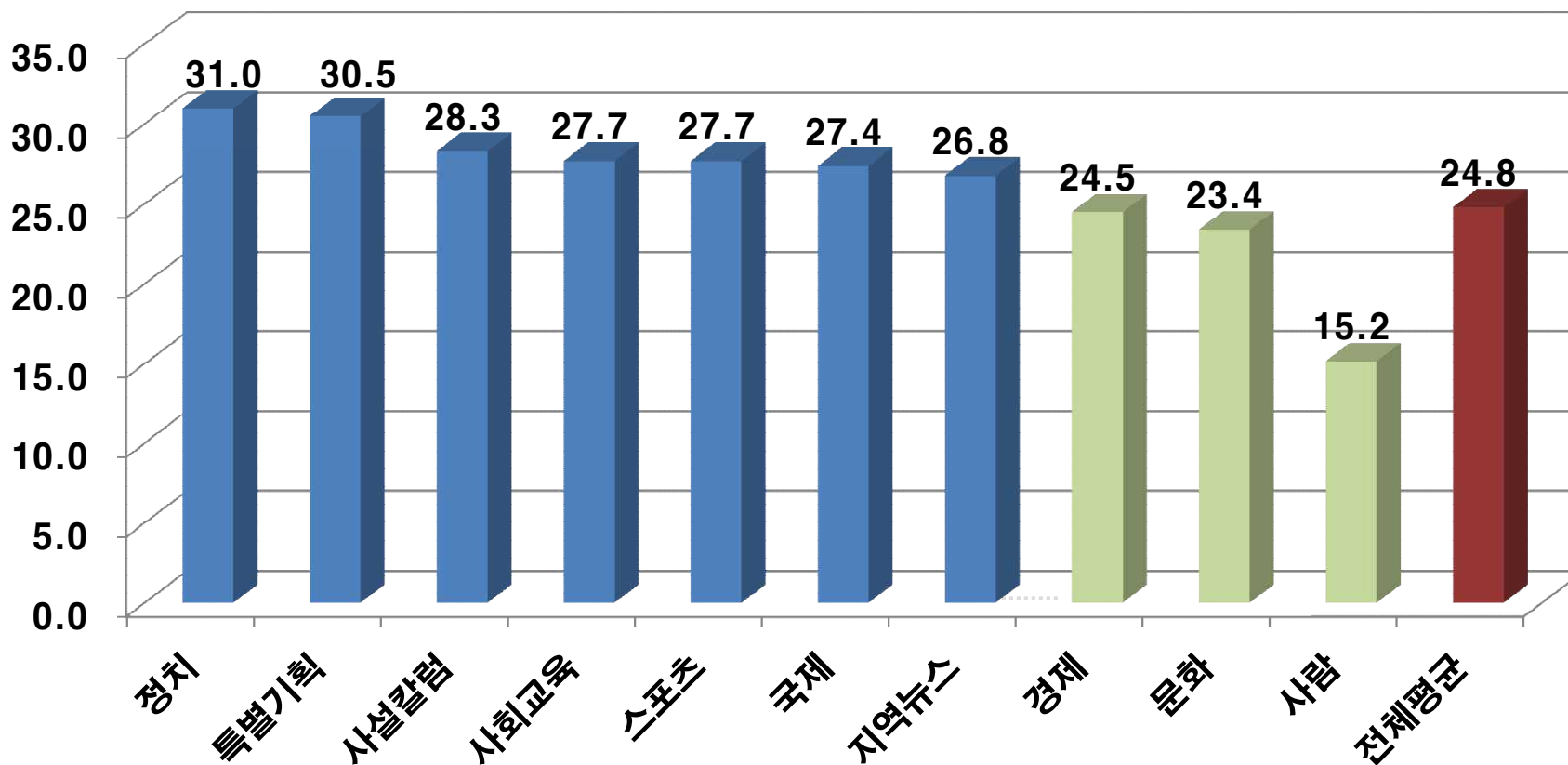
멀티미디어 뉴스콘텐츠 제작이 대세
선진국 신문업계는
컴퓨터 활용보도(Computer-Assisted Reporting)
즉 'CAR' 사용을 상용화 중
뉴스생산의 심층성과 다양성 확장이 가장 큰 숙제
젊은 층의 뉴스수요는 육하원칙과는 멀어지고 있지만,
심층분석과 감춰진 내용을 찾아내며 인과관계이거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기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정리: 뉴스콘텐츠 패러다임의 혁명적 전환기

- 텍스트, 그래픽, 동영상의 결합이 점점 더 뉴스의 기본 구조가 되어가고 있다.
- **Print First 전략 (기존 신문사 전략)**
종이신문이 중심, 주변부에 인터넷, 모바일 등이 배치
- **이제는 'Print Last'**
인쇄는 콘텐츠 활용의 마지막 단계
온라인중심적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뜻

“Online First, Print Last(Best)”

• 신문기사 열독율 (단위 %)



2010 한국신문협회 독자프로파일 조사연구
 중앙일간지, 경제지, 지방지 포함 8개 주요신문
 독자 1,165명 조사, 기사 6,808개와 광고 2,146건 조사

• 주간 평균 페이지뷰(PV) 및 이용시간(분)

구분	주 평균 PV (단위: 페이지)	비율	주 평균 이용시간	비율
뉴스	74.8	12.8%	49.1	16.4%
포털커뮤니티	86.8	14.8%	43.9	14.7%
전자상거래	87.8	15.0%	42.0	14.1%
인터넷서비스	64.0	10.9%	25.2	8.4%
포털검색	43.5	7.4%	21.0	7.0%
금융부동산	29.5	5.0%	17.1	5.7%
비즈니스	26.2	4.5%	13.9	4.7%
직업교육	25.7	4.4%	13.6	4.6%
포털커뮤니케이션	33.9	5.8%	13.6	4.5%
생활정보	25.6	4.4%	12.6	4.2%
엔터테인먼트	22.8	3.9%	12.5	4.2%
게임	20.4	3.5%	10.7	3.6%
기관단체	17.7	3.0%	9.1	3.0%
포털키즈	9.5	1.6%	3.8	1.3%
스포츠레저	5.9	1.0%	3.0	1.0%
포털기타	12.0	2.1%	7.8	2.6%
전체 평균	주당 약 720 페이지뷰		주당 약 358분	

출처: 월간 신문과 방송 2011년 1월호 - 2010년 한국신문협회 독자프로파일조사연구
 2010년 4월~6월(3개월간) 1만명의 컴퓨터에 탐색프로그램 설치 후 로그파일 분석
 (여타 조사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최초의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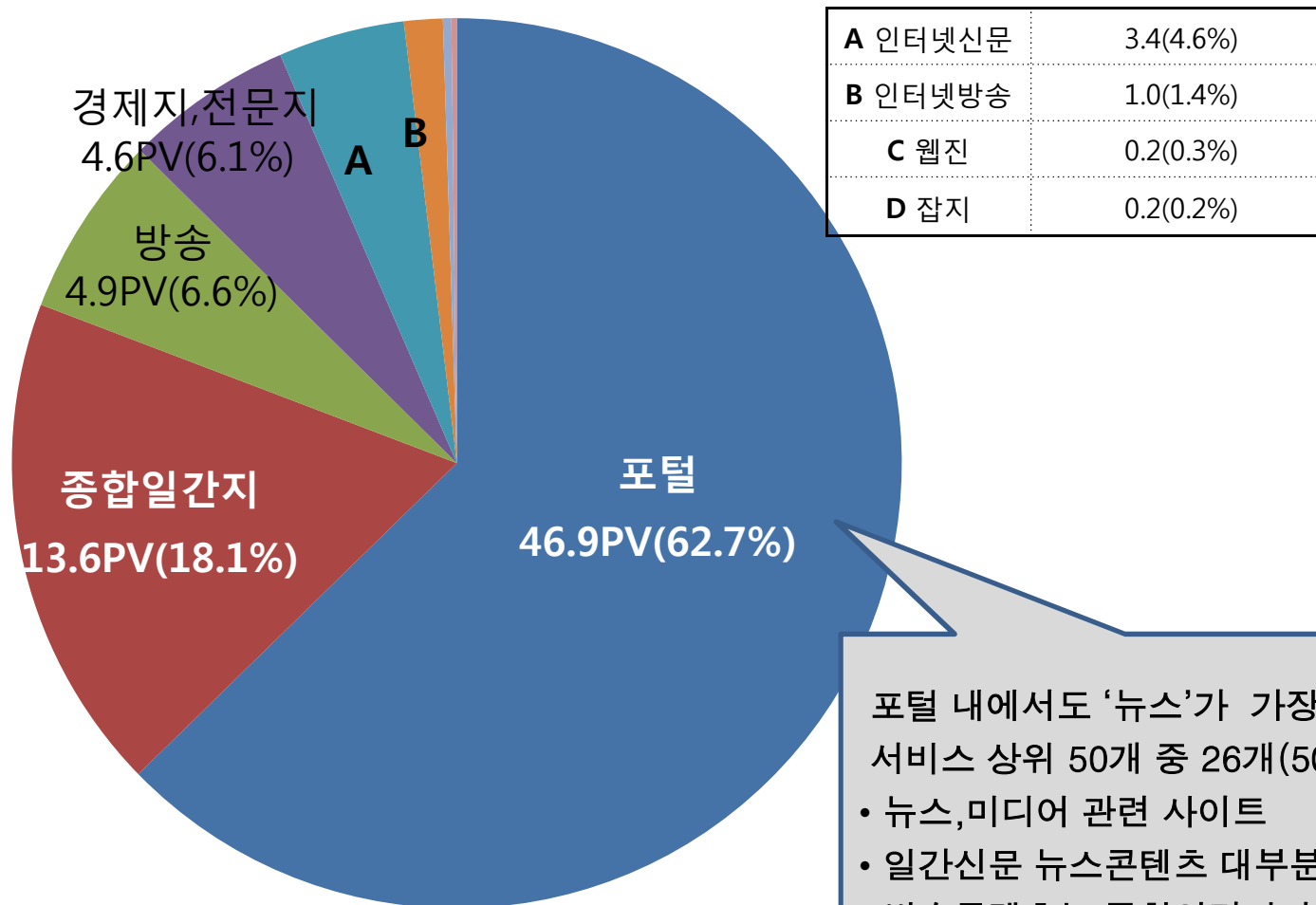
• 주간 평균 페이지뷰(PV) 및 이용시간(분)

인터넷 뉴스 서비스 1주 평균 페이지뷰 및 이용시간

구분	페이지뷰	이용시간
포털	46.9 (62.7%)	29.3 (59.6%)
종합일간지	13.6 (18.1%)	9.0 (18.3%)
방송	4.9 (6.6%)	3.0 (6.1%)
경제지,전문지	4.6 (6.1%)	3.4 (6.9%)
인터넷신문	3.4 (4.6%)	3.4 (7.0%)
인터넷방송	1.0 (1.4%)	0.7 (1.5%)
웹진	0.2 (0.3%)	0.1 (0.3%)
잡지	0.2 (0.2%)	0.1 (0.2%)
전체평균	74.8 PV / 1주당	49.1 시간/ 1주당

출처: 월간 신문과 방송 2011년 1월호 - 2010년 한국신문협회 독자프로파일조사연구
 2010년 4월~6월(3개월간) 1만명의 컴퓨터에 탐색프로그램 설치 후 로그파일 분석
 (여타 조사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최초의 작업)

• 인터넷 뉴스서비스 1주 평균 페이지뷰(PV)



포털 내에서도 '뉴스'가 가장 중요함
서비스 상위 50개 중 26개(50%)

- 뉴스,미디어 관련 사이트
- 일간신문 뉴스콘텐츠 대부분
- 방송콘텐츠는 종합일간지의 1/3 수준

• 기술이전 잘되는 보도자료 작성법

- **당신의 뉴스가 의미있고, 보지 않을 수 없도록 하라**
무생물보다 사람의 이야기(성공스토리)
뉴스 가치를 높이는 감동이야기(꿀씨의 성공, 인생역전)
- **보도자료만 잘 써도 기사가 된다**
신문기사 흉내내기
간결하고 쉽게 쓰기(전문용어 사용 자제)
피동형보다는 능동형 표현
한 문장은 60글자 이내로 짧게(리듬에 맞춰 강-약-중-강-약)

• 기술이전 잘되는 보도자료 작성법

• 단어의 정확성

차별적 표현의 금지

인종, 지역, 세대, 성별, 직업 등에 따른 차별의식

고정선입견이 나타난 표현이 있는지

비속어, 유행신조어, 인터넷 통신어 등 사용금지

• 문장의 정확성

번역투의 문장, 피동형의 문장, 과도한 높임말

• 텍스트의 정확성

제목과 부제, 주제와 논점이 분명한가

진실성, 사실성, 객관성의 보도원칙을 지키고 있는가

• 기술이전 잘되는 보도자료 작성법

• 꾸준히 뉴스를 모니터링하라

매일 아침 검색어로 모니터링

“기술이전”, “기술사업화”, “특허”, “산학협력”

“OOO대학”, “창업보육”, “기업가정신”, “지식재산권”

“테크노파크”, “태양광”,

• 대학의 변화에 민감히 반응하라

산학협력(단)이 대접받는 시대. 대학의 비즈니스 세상 확장

• 인터뷰와 글쓰기 능력을 키워라

핵심을 간결하게 설명하기, 간결하게 정직하게 서술하기

• **끝.**

감사합니다.